

Part 1 — 돈의 종말

회차 도입 — 종이 화폐 다음의 왕좌는 누가 차지하는가

· 정리 2026-05-13

달러가 무너지면 원화로 도망가면 될까? 정답은 NO.

Part 1 「돈의 종말」을 마무리하는 5강은 그동안 미뤄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합니다. 종이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다음 왕좌는 누구의 것인가. 인류 역사에서 화폐 타락 시 사람들이 물물교환 시대로 회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회차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시장과 중앙은행은 이미 첫 번째 후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 금입니다.** 그리고 한국 청자에게 짚어두는 별개 메시지: **달러가 무너져도 원화로 돌아갈 자리는 없습니다 — 원화가 더 빠르게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강은 4 후보(금·CBDC·에너지·코인)를 차례로 비교하고, 메탈·우라늄·은의 과도기 역할까지 17장으로 추립니다.

5.3조 달러

2025 Q3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액 — 美 국채(3.9조)를 처음 추월한 30년 만의 변곡점

달러가 무너지면 위안화·원화가 차지할까요? 회차는 다른 답을 짚습니다.

종이 달러 다음의 4 후보

종이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자리를 채울 후보는 누구일까요? 강의는 4 후보를 짚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화폐 타락 시 물물교환 시대로 회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기존 화폐 몰락은 늘 더 신뢰할 수 있는 새 화폐로 진화하는 촉매로 작동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데나리우스 은화의 가치가 추락하자 금과 솔리두스가 절대 가치를 인정받았고, 1971년 닉슨이 금태환을 중단하자 달러는 피아트 머니로 진화했습니다. 그 종이돈도 2008년 · 2020년 위기로 또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한 통화가 단독 군림하기보다 두세 후보가 공존 ·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이 달러 자리를 채울 4 후보

후보	정체성	핵심 강점
신뢰의 후보 — 금	4천년 부도 0회	우주 채굴 · 합성 비현실
통제의 후보 — CBDC	국가 모든 거래 감시 · 통제	Programmable Coin
에너지 후보 — 전력	AI · 첨단 문명 동력	일론 머스크 강력 주장
탈중앙 후보 — 코인	권력 독립 디지털 금	BRICS 발 통제 어려움

원화가 달러보다 더 빨리 타락한다

달러가 흔들리면 원화로 도망가면 될까요? 강의의 첫 한국 청자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 **NO**. 패권 통화 몰락은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걸리는 서서한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원화는 달러보다 훨씬 빠르게 가치를 잃을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 규모가 작아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느리게 성장합니다. AI 혁명으로 미국 생산성이 급등하는 동안 한국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더 취약함에도 기준금리는 낮아 자본 유출 압력이 크고, M2(돈의 양)는 더 빠르게 늘며, 가계부채는 더 무겁습니다.

여기에 인구 소멸과 높은 수출 의존도가 추가 위협. **달러가 타락해도 원화는 그보다 빠르게 타락한다** — 결과적으로 달러는 원화보다 훨씬 강한 자산으로 남는다는 것이 강의의 진단입니다.

■ 한국 vs 미국 — 5축 약세

지표	한국 vs 미국
경제 성장률	한국 < 미국
생산성 증가율	한국 < 미국
기준금리	한국 < 미국
M2 증가 속도	한국 > 미국
가계부채	한국 > 미국

금값 폭주 + 2022년 분기점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금값이 2024년부터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달러 가치 하락 신호를 넘어 **금-국채 금리의 역상관관계 자체가 깨지는 이상 현상**이 본격화됐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미국 10년물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는 역의 상관관계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미국 금리가 올라가도 금값이 함께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달러로부터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분기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달러 패권의 위상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금값 변곡점 타임라인



러시아 외환 6,300억 달러의 운명

강의가 짚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우크라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6,300억 달러는 자산 종류에 따라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유럽은 즉시 2,100억 달러의 유로화 자산을 동결했고, 미국은 러시아 기업·금융사가 보유한 1,000억 달러 달러 자산까지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자국 금고에 둔 1,350억 달러 금은 **온전히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시키는 초강수까지 두었습니다. 러시아의 결론 — '**믿을 수 있는 것은 금뿐, 차선은 위안화**'. 이 인식은 러시아에서 끝나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러시아 외환 6,300억 달러 — 자산별 운명

자산	결과
유로화 2,100억	동결 (유럽 국채까지)
달러 1,000억	동결 (민간 은행 예금까지)
위안화 800억	유지 (중국 신뢰)
금 1,350억	온전히 유지 (자국 금고)

| 종이금에서 실물금으로 — 러시아의 교훈

강의는 한 가지 이정표를 짚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 훨씬 전부터 이미 신호를 읽고 있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직후 영국 중앙은행에 보관해둔 러시아 금이 **전량 몰수당했습니다**. 한 국가의 금을 다른 국가가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이 노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2014~2021년 러시아는 해외에 보관해둔 금을 전부 본토로 옮겼습니다 — **2,500톤 이상**.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정답이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 전쟁 시점 1,350억 달러였던 자국 금 가치는 2025년 **3,700억 달러**로 상승해, 서방에 압류당한 금액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종이 금은 언제나 압류된다, 실물 금만 안전'이라는 인식이 글로벌 사우스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종이금(뉴욕·런던 보관 증서·ETF·은행 영수증)과 실물금(자국 금고에 직접 보관)의 차이가 역사적 분기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인식이 미국 의회의 REPO 법안 통과 + 유럽의 이자·수익 전용 법안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떠나 실물 금으로 향하는 거대한 흐름이 본격화됐습니다. 다음 카드에서 그 입법 시점을 정리합니다.

미국채 이탈 + 글로벌 사우스의 실물금 매입

강의는 두 입법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짚습니다. **2024년 4월 미국 의회 REPO 법안 통과**(러시아 자산 몰수 합법화) + **2025년 5월 유럽 의회 이자·수익 전용 법안 통과**(원금 몰수는 유로화 시스템 붕괴 우려로 차마 결정 못 함).

그 후 EU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 **2025년 12월 12일 무기한 동결 결정**으로 6개월 갱신 요건을 폐지하고 €165B 우크라 reparations loan 추진 중. †3

결과 — 중국·인도·사우디·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 국채는 언제든지 동결될 수 있고 유럽 국채도 신뢰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채 비중을 줄이고 실물금 매입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금값 폭등의 핵심 원인입니다.

REPO Act → EU 무기한 동결 사례 후속



안전 자산의 순차적 붕괴

강의는 안전 자산의 무너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1단계 (2022) — 미국 금리 인상에 일본이 따라가지 못해 엔화 50% 하락 + 영국 트러스 쇼크 (재정지출+감세 동시 발표 → 파운드화 폭락, 영국 최단기 총리 사임).

2단계 (2024) — 유로화·유럽 국채 몰락(프랑스 재정 적자 GDP 5.5% / 독일 다시 유럽의 병자 / 마크롱 재정 삭감 시도 국민 저항).

3단계 (진행 중) — 마지막 보루였던 미국 국채까지 흔들리는 중. 엔화·파운드화는 이미 안전 자산 경쟁에서 탈락했고, 유로화·유럽 국채까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 안전 자산 붕괴 3단계

마지막 결승전 — 美 국채 vs 금 ★

강의가 가장 명확하게 짚는 변곡점입니다. 시장과 중앙은행 양쪽이 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시장 판단 — 우크라 전쟁 발발 2022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년간, 금값은 **+156%** 상승, 미국 장기채 ETF인 TLT는 **-46%** 하락. 시장은 명백히 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앙은행 판단 — 2025년 말 세계 중앙은행 자산에서 美 국채 3.9조 vs 금 5.3조. **2025 Q3 사상 첫 역전** — Visual Capitalist에 따르면 1996년 이래 30년 만의 비중 자리바꿈. 향후 5년 76% 중앙은행이 금 비중 ↑ / 73%가 달러 비중 ↓ 응답. †1

단순 분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의 결승전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美 국채 vs 금 — 시장과 중앙은행의 같은 답

관점	결과	비고
시장 (4년)	금 +156% / TLT -46%	우크라 전쟁 후
중앙은행 (2025말)	美 국채 3.9조 < 금 5.3조	사상 첫 역전
전망 (5년)	76% 금 ↑ / 73% 달러 ↓	응답률

미국 재정 — 2030 파산 영역

왜 강의는 금값 상승 압력이 영구화될 거라고 짚을까요? 미국 재정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9조 달러 적자 + 9,800억 달러 이자 비용에서, 2030년에는 2.5조 달러 적자 + 1.45조 달러 이자 비용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 사실상 파산 영역입니다.

트럼프의 BBB 법안(감세와 재정 지출 동시 추진)과 정부효율위(DOGE) 실패가 결정적으로 적자 흐름을 가속합니다. 미국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 부담을 녹이는 방법뿐**이며, 이는 곧 **금값 상승 압력의 영구화**를 의미합니다.

회차 시점 후 미국 부채는 GDP 134%로 더 악화 중 — 위기 없는 QE 강제가 회차가 우려한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 미국 재정 — 2025 vs 2030 (강의 인용)

연도	연간 적자	이자 비용
2025	1.9조 달러	9,800억 달러
2030 (전망)	2.5조 달러	1.45조 달러

왜 은(Silver)은 안 사는가

강의는 한 가지 의문을 짚습니다 — 중앙은행은 금만 편애한다. 은은 거의 사지 않는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운송·보관 — 1트로이 온스 금 4,600달러 vs 은 90달러. 100억 달러어치 금은 트럭 3대(68톤) 분량이지만 은은 트럭 약 150대(3,460톤) 분량이 필요.

2 시가총액 — 금 32조 달러 vs 은 4.7조 달러. 중앙은행이 경쟁 매입하면 은값이 10배 폭등할 수 있는 구조.

3 산업 소모 — AI·첨단 우주·첨단 무기 핵심 소재. 가치 저장 vs 산업 수요 충돌.

다만 후술하듯 은은 **에너지 화폐**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을 중앙은행이 안 사는 3 이유

이유	내용
운송·보관	100억 달러 금 트럭 3대 vs 은 ~150대
시가총액	금 32조 vs 은 4.7조 (경쟁 매입 시 폭등)
산업 소모	AI·우주·무기 핵심 소재

CBDC — Programmable Coin

두 번째 후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강의를 'Programmable Coin'으로 부릅니다 — 기존 종이돈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조건을 코드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강제 소비**(유효기간 설정 → 기한 내 소비 강제 → 경기부양), **자산 도피 차단**(사용처 제한 — 식료품 OK, 달러·금 매입 X), **저축 억제**(마이너스 금리 → 매달 1% 삭감 → 지출 강제) — 이 3 기능을 국가가 임의로 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 **국가(중앙은행)가 모든 거래를 감시·통제 가능**. 특정 개인의 언제·어디서·무엇을 샀는지 상세히 파악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빛을 녹이기도 쉬워집니다.

반대도 강합니다 —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미국 시중은행, 독일·프랑스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 국민과 시중은행.

■ Programmable Coin 3 기능

CBDC 3 블록 + 스테이블 코인

강의는 CBDC가 만들어낼 세계를 3 블록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은 **중간 지대** — 정부는 도입을 원하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구도.

한국은행은 가장 적극적인 두 번째 국가입니다(1순위 중국 인민은행). 이창용 총재가 '노인·아동 수당 추적 가능'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본질은 모든 금융 거래 데이터가 한은 디지털 원장에 기록되는 빅 브라더 사회.

한편 자유 진영(블루 블록)은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택했습니다. 2026년 4월 시총 사상 최고 **\$321B**(USDT \$189.5B / USDC \$77.1B). 미국 GENIUS Act가 1:1 reserve(미국채 또는 현금성) + 라이선스를 강제하며 본격 제도화 중. †2

미국 부정 여론 +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흐름 → 한국은행 강력 추진 태도도 한풀 꺾임. **CBDC 단독 도입 가능성은 점차 ↓.**

CBDC 3 블록

블록	국가	정책
● 레드 (권위주의)	중·러·BRICS·사우디	CBDC 표준화 + 감시 + 미국 제재 회피
● 블루 (자유진영)	미·영·캐·일	스테이블 코인 (블랙록·서클·JP모건)
● 중간	한국·유럽	정부 원함 / 국민 반대 / 절충 모색

에너지 화폐 — 머스크와 헨리 포드

세 번째 후보는 에너지 화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AI·첨단 문명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금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주장합니다. 화성에서 금은 단순한 돌덩이지만 에너지는 생존 필수라는 비유. 원조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 1킬로와트시(kWh) = 10센트로 정해 모든 가치를 에너지 단위로 환산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는 치명적 약점을 짚습니다 — **전력은 썩는다 (엔트로피 법칙)**. 자연 법칙이 화폐 후보의 발목을 잡는 사례입니다.

화폐의 3대 기능 중 **가치 척도**는 OK입니다(1kWh = 일정한 값). 그러나 **거래 수단**(송전 시 저항으로 손실 — 1kWh가 100km 송전되면 0.9kWh만 도달)과 **가치 저장**(배터리에 충전된 100kWh가 10년 후엔 거의 0)이 모두 취약합니다.

에너지를 안정적 가치로 변환하려면 **디지털 연금술(Tokenization)**이 필요합니다 — 헨리 포드 시대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블록체인·토큰화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시도 가능 영역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카드에서 그 3 모델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디지털 연금술 3 모델 — 모두 한계

강의는 디지털 연금술 3 모델을 짚고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비트코인 모델은 일론 머스크 류가 미는 방식 — 잉여 전력으로 코인을 채굴해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비가역적 — 비트코인을 다시 에너지로 교환할 보장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썼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가상 발전소 모델은 테슬라 + 파워월 조합 — 분산된 가정용 배터리에 토큰을 입혀 거래합니다. 그러나 송전망 업그레이드에 수조 달러가 필요하고, 구리선의 저주(낮은 전력망)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큰은 팔렸지만 에너지가 전송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 토큰화 모델은 샘 올트먼 류 — H100 GPU 1시간 사용권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GPU는 3~7년 안에 감가상각되며, 가치 하락 자산은 화폐로 부적합. 빅테크 외 일반 대중의 일상 거래에는 부적합합니다.

본격적인 에너지 화폐 등장까지의 과도기에는 다른 자산이 다리를 놓을 가능성이 큼 — 메탈·우라늄·은이 그 후보입니다.

■ 디지털 연금술 3 모델

모델	주장자	한계
비트코인 (잉여 전력 채굴)	일론 머스크	비가역적 — 토큰 → 에너지 보장 X
가상 발전소 (테슬라 + 파워월)	일론 머스크	송전망 업그레이드 수조 달러
컴퓨팅 파워 토큰 (GPU 1시간)	샘 올트먼 류	GPU 감가상각 3~7년

은 부각 3 이유 + 변동성 nuance

강의는 과도기 후보 중에서도 은을 가장 주목된다고 짚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

- 1 **역사적 익숙함** — 4천 년 가치 저장 수단. 갑자기 리튬·니켈로 가면 심리적 저항이 큼.
- 2 **적절한 희소성** — 구리는 매장량이 너무 풍부, 은은 금보다는 흔하지만 구리보다 훨씬 희소.
- 3 **대체 불가능성** — 은의 핵심 가치 '전기 전도율'은 인류가 발견한 모든 물질 중 1위.

다만 강의 자체가 신중함도 짚습니다 — 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정규 강의로는 시의성 부족 우려. 외부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 2026년 1월 약 \$95에서 4월 \$73.58로 -22%. 6년 연속 구조적 공급 부족(67Moz) + 산업 수요 700Moz. 다만 중국 태양광이 은 → 구리 대체로 향하는 nuance도 있습니다. † 4

■ 은이 가장 주목받는 3 이유

이유	내용
역사적 익숙함	4천년 가치 저장 수단 — 심리적 저항 X
적절한 희소성	구리보다 희소, 금보다 흔함
대체 불가능성	전기 전도율 인류 발견 1위

Part 1 마무리 — 결론과 다음 시리즈

본 회차가 한국 청자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두 줄로 압축됩니다.

- 1 달러보다 원화가 더 빨리 타락한다 — 원화로 도망갈 자리는 없다. 5축(성장률·생산성·금리·M2·가계부채) + 인구 소멸 + 수출 의존도 모두 같은 걸.
- 2 금이 첫 번째 후보로 굳어졌다. 시장(4년 +156% / TLT -46%) + 중앙은행(美 국채 3.9조 < 금 5.3조 사상 첫 역전) 양쪽 모두 같은 결론. 단순 분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의 결승전이 끝났다**는 신호.

CBDC는 자유 진영의 스테이블 코인 흐름과 미국 부정 여론으로 단독 도입 가능성이 점차 낮아집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여전히 의지를 보이는 만큼 빅 브라더 우려는 살아 있습니다. 에너지 화폐는 엔트로피·송전망·감가상각 한계로 가까운 시일에 어려운데, 그 사이 메탈·우라늄·은이 다리를 놓을 가능성이 크며 그중 은이 가장 유력한 과도기 후보입니다.

강의 자체는 분석과 진단 중심입니다 — 직접적 투자 권유는 없습니다. 회차의 메시지는 모니터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전 자산의 결승전이 끝났다 — 시장과 중앙은행이 같은 답을 내놨다.

다음 시리즈

은 → '실물경제의 부활' / 코인 → '디지털 자산 혁명'

Part 2부터 본격 분석.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특별편 + 지식 한방 콘텐츠로도 별도 제공 예정.

박종훈의 지식한방 Part 1-5강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 핵심 논지와 외부 자료 보강을 통해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요약입니다.